

지리교육과 삶의 질: 21세기 지리교육의 과제

류 재 명*

Geography Education and Quality of Life: The Agenda of Geography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Jae-Myong Ryu*

요약 : 본 연구는 삶의 질의 문제가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제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리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밝힌 것이다. 지리교육분야에서 제기되는 삶의 문제란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는데, 지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투입되고 활용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질적 개선이 없이는 지리교육 분야에서의 삶의 질은 고양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교재와 학습 프로그램과 수업운영방법에 있어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리교육의 목표 명료화, 지리교육과정의 계열적 조직방안 개발, 지리교육의 개념과 내용체계 표준화, 자료에 근거한 사고력 기르기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연구가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지리교육, 삶의 질, 지리교육과 지리학의 관계, 지리교육의 과제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what agenda could be raised on the subject of the quality of life in geography education and to clarify what to do to enhance the quality of learning and teaching activities in geography classrooms. Several tasks of geography education are discussed for the quality of life and the better living environments; first, we have to clarify the aims, scopes, and sequences of geography education. Second, we need to standardize the concepts and contents of school geography. Third, we need to develop the learning program to encourage students do the data-based thinking. These require further systematic research in text materials, teaching program, and classroom activities for qualified geography education.

Key Words : geography education, quality of life, agenda of geography education

1. 머리말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육열이 교육의 과정에 보다는 교육의 결과에 집중되고, 그리고 교육결과에 대한 관심도,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교육받은 결과가 미래의 삶의 질에 나타날 영향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주어지기 보다는, 자녀의 대학입시 통과라는 것에 집중됨으로써, 교육열의가 생산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논의 주제는 21세기의 삶의 질이다. 21세기에는 교육이라는 변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빠르게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 연구, 신상품의 생산·유통·소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이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그 유통속도 또한 매우 빠르므로 각 개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더구나 지역간 혹은 국가간 장벽들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생활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활동하는 공간적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경쟁의 마당이 넓어짐으로써 더욱 치열한 경쟁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가능성에는 도전과 위협받을 가능성도 포함된다. 확대된 생활공간 내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지 못하면 생존조차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국제 경쟁사회에서 '소비자 중심'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산업을 서비스 산업이라고 한다. '서비스'의 개념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면, 교육시장에서도 살아남기 힘들다. 그동안 교육시장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변화의 속도가 느렸다. 그러나 벌써부터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교육시장 안에서의 지역간, 국가간, 분야별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소비자 중심', '학습자 중심'의 소위 '열린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지리학은 교육시장에서 경쟁성을 크게 확보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교육 경쟁성이 강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조짐은 찾아보기 힘들다.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마당에서 지리학과 삶의 질이라는 주제를 놓고, 지리학 관련 학회들이 모여 이렇게 심포지움을 열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삶의 질은 매우 포괄적인 것이지만, 지리교육의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연구활동의 목표가 무엇이나? 왜 공부를 하느냐? 학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지리교육은 왜 하느냐? 등의 매우 중요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로 지리학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지리교육의 앞날은 상당히 밝아질 것이라고 본다.

특히 지리교육이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지 못하였다는 반성이 많았는데, 이런 자리가 마련됨으로써 우리의 자세를 검토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관

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사람의 삶이란 시시각각 각종의 다양한 활동으로 표출되고, 그 속에서 삶의 질이 평가되고 느껴지는 것이므로, 본 발표자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논의를 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다양한 관련 학회의 관점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발표가 있기도 한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는 필자로서는 '지리교육'에 한정하여 삶의 질을 논의해 보도록 하려고 한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지리교육과 관련되어 삶의 질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누가 지리교육에 의해서 그 삶의 질이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과 관련된 삶의 질이 문제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지리교육과 관련되는 사람과 그들의 활동 과정에서 부각되는 삶의 질의 문제, 그리고 지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를 살펴보고, 셋째는 21세기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발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인간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는 지리교육내용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지리교육내용의 학습효과로 나타날 학생들의 미래 삶의 질, 혹은 지리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생활공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잘못된 공간문화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공간이용 문화 정립에의 적극적인 참여태도 등과 관련되는 논의는 본 발표자의 능력 부족으로 하지 못하여 안타깝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2. 누구의 삶의 질이나, 그리고 어떤 삶의 질이나?

본 발표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먼저 "누구의 삶의 질이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지리교육과 삶의 질에 대한 논의에서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멋진 어휘를 구사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목표와 대상이 불명확하여,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힘있게 답변할 수 없다면,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고 말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리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논의가 생산적이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지리교육의 문제점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개선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하지 않았던데도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소비자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 누가 소비자인가? 소비자의 불만은 어디에 있는가? 그동안 우리는 너무 공급자 중심에서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지리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학생을 나무라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지리수업을 재미있게 운영해 나가지 못한다고 학교 교사를 탓한 적은 없는지 말이다.

그러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복잡한 맥락적 상황 속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유발되는지, 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그렇다고 문제를 단순화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먹이사슬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리교육 관련자들의 서비스 연계를 그림 1과 같이 살펴보는 것은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림 1에서 사회과학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의 지리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지리학자는 최상위에 있는 '학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 사실 지리학 관련학회 회원에는 지리교사나 지리교사 양성대학의 교수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회'가 아래 단계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피라미드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해 보고자 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리' 과목을 학습하려는 학생이 하나도 없다면, 지리교사도 존재할 수 없고, 지리교사라는 직업이 이 사회에서 설자리를 잃어버리면, 사범대학의 지리교육과 혹은 사회교육과 지리전공에 소속된 교수들도 설자리가 매우 위태로워 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태로워 진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초중등학교의 지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지리학전공 교수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여도, 지리학이라는 순수학문을 하는 학과는 충분히 존립할 수 있고, '교육분야' 이외에도 지리학 전공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본 발표자도 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학회의 밑바탕을 이루는 직업의 종과 종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먹이사슬'의 한 결절에 있는 전문지리학자나 그들로 구성된 관련학회의 파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쯤에서 초기의 질문인 "누구의 삶의 질이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 그림 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리교육과 관련한 사람들의 삶의 질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지리를 가르치는 교사도 기분이 좋아지고, 지리교사라는 직업인기도 높아지면, 교사양성대학의 지리학 전공교수도 즐거워질 것이며, 마찬가지로 역의 논리도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리교육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질은 학생과 교사에게서 가장 잘 드러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이 숫적인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면 그 정도가 가장 크고, 또 문제해결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힘든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지리교육 시간은 다른 교과목의 시간에 비하여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전국의 수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의 수업시간에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이고, 전국의 많은 지리교사들이 매일 몇 시간씩 지리를 가르치는 수업시간에 직업 불만을 크게 느낀다면, 지리교육자인 나 같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누구의 삶의 질이나"와 함께 "어떤 삶의 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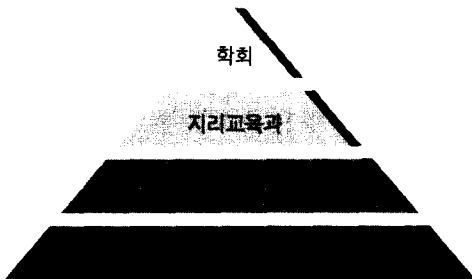


그림 1. 지리교육의 서비스 연계

냐”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 지리교육과 관련되는 활동의 종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리교육과 관련된 삶의 질은 지리교육의 질과 관련되고, 지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의 질이 핵심적인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서비스 연계 과정에 위치한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주로 하게 되는 활동의 종류가 다르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삶의 질이냐” “어떤 삶의 질이냐”를 검토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사인 지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 다시 말하면, 각각의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지리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삶의 질은 접촉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접촉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누구에 의해서 혹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유발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삶의 질은 각각의 입장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들이 어떤 것인지, 왜 그러한 불만들이 나타나는지의 문제로 바뀌어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사람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그것은 독립적인 한 개인의 문제로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인식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되어 그러한 인식이 발생하고 느껴지는 것인만큼 그러한 인식의 연결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지리수업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그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문제라서 그 학생이 개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다면 이들이 교실이라는 공간속에서, 또 수업시간이라는 시공간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질이 낮다고 하면, 이는 이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 즉, 교사의 문제와 관련된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수업시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적 조건이 교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입시제도, 학교의 시설,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 학교장이나 교육지원기관에서의 교육지원활동의 질이 관여하게 된다.

이런식으로 검토해 보면, 교과서의 집필자, 교육과정개발에 참여한 자, 교육정책자, 교육에 대한 예산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태도 등도 관련된다. 따라서 지리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연계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지리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관계를 보여준다. 사람마다 주요 역할이 다르고, 그에 따라 지리교육과 관련되어 평가될 수 있는 '삶의 질'이 각기 상이하며, 문제의 인식과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다르다. 지리학자는 지리학의 지식을 생산·관리하고, 지리교육에 있어서의 내용지식의 원천을 제공하며, 교과전문가와 함께 지리교육과정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교과전문가는 지리교육과정의 개발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지리학 지식중에서 지리교육내용으로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조직한다. 지리교사는 교육과정에 따라, 그리고 교과서 등의 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리학의 개념과 이론적 도구를 통하여 공간이라는 텍스트를 관찰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조직하여 제공하는 수업활동에 참여하여, 지리학의 지식체계를 맞보게 되고, 배운 지식을 동원하여 주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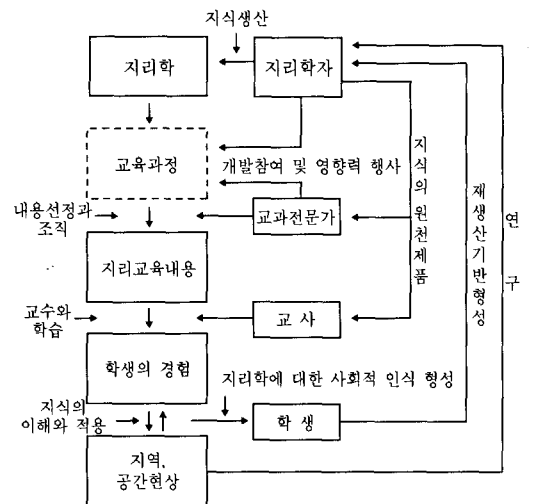


그림 2.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관계

일상공간에서의 경험을 설명해보려고 시도한다. 지리교육과 관련된 삶의 질은 바로 이러한 각 개인의 활동과정에서 평가되면서, 만족하거나 불만을 느끼게 되고, 문제시되는 것이다.

3.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문제점을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문사회의 조직 특성상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일반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련된 기업의 조직에 비하여, 학문적 기초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련된 기관의 조직은 매우 영성하기 그지 없다. 일반 기업에서는 자본의 투자와 이윤의 관리, 신상품의 생산 연구, 생산라인에서의 노동자의 작업관리, 상품의 질 심사, 포장, 유통, 선진, 광고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책임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분명하다. 계열기업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이를 통괄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그러나 지리학과 같은 지식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는 체계적인 조직이 없는거나 다름없다. 여러 개의 학회가 있고,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가 전국의 몇 개 대학에 흩어져 있고, 전국의 여러 중고등학교에 지리교사가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없으며, 책임이 분명하지도 않다.

지리학 관련 지식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이 떨어지고, 지리학 계열 인더스트리(?)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체크하고, 전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며, 새로운 투자를 하고, 기업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가 매우 불명확한 것이 특징이다. 어떤 한 학교의 지리교사가 '지리'를 가르치는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여, 지리학계에서 이를 통제할 수 없다. 어떤 대학의 지리학 교수의 업무 질이 떨어진다고 하여, 학계에서 이를 통제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직상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회에서 무엇이 문제이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의 지리교육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지리교육의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교과서가 개선되어야 한다. 교사양성대학의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한다." 등등의 소리는 분명한 책임을 지고 들어줄 사람이 없다.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도, 해결책임을 진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사람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호하다.

본 발표자는 소위 '지리교육' 전공자로서 '서울대학'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본인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누군가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을 비롯하여 지리교육에 관련된 전문가 각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을 해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지리학 지식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각자는 같은 회사(?)에서 타분야와 경쟁하는 공동의 입장에 처해 있는 동시에, 우리 그룹내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개별업체 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경쟁하느냐,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장개척에 성공하느냐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에서 다시 오늘의 핵심주제인 '삶의 질'을 다시 생각해 보자. 매우 모호하여 실체가 잘 잡히지 않는 개념이지만, 원론적으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삶의 질이라는 문제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원칙과 상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어서 자신은 혜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해결의 책임이 더 많은 사람도 '최소의 노력을 하는 사이에' 제기된 주요 문제가 적당히 해결되어 그 혜택을 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논의의 초점을 약간 벗어난 것같은데,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요점을 이야기 하면, 문제의식을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절로 개선되어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학습조직을 책임진 사람이 “15%의 인력이 잘하면 회사가 산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리교육 관련 업무에 ‘15%의 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누가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해야 하는지가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말이다.

4. 21세기 지리교육의 과제

지리교육과 관련된 삶의 질은 지리교육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이나, 교육과정 중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리교육의 내용적 질’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지리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지리교육이 ‘잡다한 사실의 나열’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목표가 명료화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 이유가 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여, 주어진 교육 여건 하에서 학습 가치가 높은 것을 적절히 선정하여 조직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방안이 논의되기 어렵고, 이것 저것 가르쳐야 할 것은 많고, 무엇을 빼고 줄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리교육의 목표설정에 대한 문제는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 진술문을 개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실천적 전략, 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이어지지 않는 목표설정에 대한 논의는 공염불이 되기 쉽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우리는 흔히 지리교육을 통하여 ‘지리적 안목’, ‘지리적 사고방식’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지리적 안목이 어떤 내용과 방법, 어떤 학습절차로 길러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리교육의 목표를 논의할 때 ‘인간과 환경의 관계

에 대한 이해’를 말하지만, 우리의 교과서 내용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적합하게 구성하려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노력해 왔는가라는 점을 생각하면 반성할 점이 많다. 또한 ‘사전적 사실 위주의 지리교육’을 비판하면서, 개념과 이론 학습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교과내용의 구성을 관찰과 사고의 대상인 지역단위로 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해왔다.

우리의 목표가 학생들로 하여금 이 지구상의 모든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하는 것인가? 지역을 보는 ‘안목’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의 지리적 사실들을 모두 관찰해야만 길러질 수 있는 것인가? 지리교육의 내용은 한국지리, 세계지리로 구분하고, 한국지리는 다시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으로 구분하고, 세계지리는 각 대륙별로 구분하고, 구분한 각 지역에 대하여 다시 지형, 기후, 산업, 인구, 도시, 교통 등으로 주제별로 각기 구분하여, 베리(Berry, 1964)의 지리학적 매트릭스상의 각 셀 하나하나를 살피는 방식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지역을 보는 안목이 길러지는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라는 학습의 전이효과는 지리교육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열을 가르쳐야 겨우 하나를 알 수 있는 내용조직 방식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류재명, 1998)

우리는 몇 차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고 사용해 왔다. 그러나 지금에도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불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왜 그런가? 그것은 연구하지 않고, 아무런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바꾸어 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바꿀 것인지 차분하게 연구해야 한다. 좋은 집에 대한 설계도를 완성하지 않고, 자꾸 집만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하여 이전의 집보다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는 줄속으로 다리를 건설한다고 비판하지만, 지리교육과정과 교과서도 줄속으로 개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육부만 탓할 것이 못된다.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투자되는 연구비가 적고, 연구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지만, 평상시 학계에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한시적인 프로젝트이

지만, 지리교육관련학회에서는 상시적인 연구주제가 되어야 한다.²⁾

21세기 지리교육이 진정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지리교육과정의 계열적 조직방안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로 나아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통괄하여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동일한 내용조직방식을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준만 달리하여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조직방식으로 계열화할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³⁾
- 지리교육의 개념과 내용체계 표준화 -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여러 지역의 다양한 지리적 사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지역정보들 속에서 '사실' 위주의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별로 각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개념과 원리, 혹은 지리적 사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바로 각 과정별 목표와 평가기준안 작성이라는 작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사람마다 지리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교사에 따라, 혹은 저자에 따라, 지리교육의 내용구성이나 접근방식이 너무 다르다. 도대체 지리교육이란 무슨 주제를 어떤 개념으로 무엇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것인지, 지리교과라고 하면 무엇을 핵심문제로 다루는 교과인지, 그 정체가 매우 모호한 실정이므로,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⁴⁾
- 자료에 근거한 사고(data-based thinking)훈련을 돕기 위한 내용전개의 디스플레이 방식과 사고의 과정에 따른 학습진행의 단계화 방안 - 교육이 '종교적 믿음'을 기르는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를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각 학습내용에 대하여 사고의 과정을 작은 단계로 구분하여 논리적 비약없이 단계별(step by

step)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지리교육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지리교육정보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성 방안 - 세계 각 국가와 지역마다 지리학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고, 지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이들 기관과 학자, 교육자가 각기 수집, 관리하는 지리교육 자료를 네트워크하는 방안을 세계지리학회와 더불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사회에서의 지리학 혹은 지리교육의 경쟁력은 지리에 관한 가치있는 정보를 얼마나 서로 많이 공유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5. 마무리

지리교육과 관련된 삶의 질 문제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의 질적 가치의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가치있고, 즐겁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없이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고생해서 연구하여 서비스하려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가 연구해 주어야지 하고 바라기만 하면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한두 사람의 몇 편의 연구논문으로 지리교육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이 서로 경쟁하고 논의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 자체만으로 비판되고, 토론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 발표자의 나이, 경력, 직위 등으로 아이디어가 평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발표된 아이디어가 모두 완벽하고, 성공적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발표된 것의 10%만 지리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도 성공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리교육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註

- 1) 한국 지리학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한국지리학의 뿌리가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리교육의 주축이 되어 발전되어 온 것과 관련있음을 지적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인식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어서 전문 지리교육학자가 양성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이들은 지리교육과정이나 지리교과서 개발에 거의 참여하지도 못하였다. 초중등학교 지리교사 양성에 있어서나 지리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리학자였다. 그리고 지리학의 시장개척이나 지리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지리학자가 지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리교육과 관련된 일에 참여함으로써 생긴 것이라기 보다는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리교육의 기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리학의 시장도 확보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지리학자들중에는 지리교육을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지리로 한정해서 지리교육의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학에서의 지리교육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지식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지리교육의 문제가 결코 몇몇의 지리교육학자나 지리교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지리학계에서 지리교사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과와 순수 지리학을 연구하는 학과와의 갈등과 마찰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며, 서로 협조하여 지리교육시장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나아가 일반인들의 지리적 인식 수준 고양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그런데 그동안 지리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지리교육 내용의 계열적 조직방안을 강구할 때 아직 1900년 초에 맥머리(McMurry, 1922)가 제안한 지평확장 모형을 따르고 있다. 1903년에 초

판으로 출판된 그의 책에서 맥머리가 그 안을 발표할 때와는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화하였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새로운 대안 모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지리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고,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류재명·서태열(1997)과 노희방(1997)의 논쟁이 유일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 3) 이에 대한 연구로는 이찬·임덕순(1980), 이양우(1984), 서태열(1993), 류재명(1998)의 논문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국가지리표준안(National Geography Standards)을 만들어 지리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National Geographic Society 등 4기관이 공동으로 이 표준안을 만들었다. 사실 이 표준안은 1984년 출판된 *Guidelines in Geographic Education, K-12* 이래 10년에 걸친 긴 세월동안 수많은 지리학자 및 지리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추진해 온 거대한 프로젝트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지리교육표준안 프로젝트(the National Geography Education Standards Project) 수행에는 100명이 넘는 위원들이 분야별로 몇 개의 위원회로 나누어 활동하였고, 표준안은 8회에 걸친 공청회를 거치고, 216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초고 원고를 검토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Bednarz 외 7명의 저자가 집필하여 1994년 *Geography for Life: What Every Young American should Know and be Able to do in Geography*라는 책명으로 출판되었는데, 272쪽 짜리의 방대한 책자로, 초·중·고 과정이 한꺼번에 망라되어 있다(Bednarz, S. W. et al., 1994). 우리 나라에서는 그동안 7차에 걸쳐 지리교육과정을 개정해 왔지만, 극소수의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줄속으로 개발해왔기 때문에, 폭넓은 지지를 못받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몇몇 전문가의 잘못으로

나타난 것이라기 보다는 제도적인 한계와 예산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교육학계가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文 獻

- 노희방, 1997,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영역 개발보고: ‘제7차 지리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의견.” 지리·환경교육, 5(2), 143-150.
- 류재명, 1998, “지리교육내용의 계열적 조직방안에 대한 연구”, 지리·환경교육, 6(2), 1-18.
- 류재명·서태열, 1997, “제7차 지리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지리·환경교육, 5(2), 1-28.
- 서태열, 1993, 지리교육과정의 내용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찬·임덕순, 1980, “초중등학교 지리교육의 구성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2, 한국교육개발원, 177-236.
- 이양우, 1984, “지리교육과정 내용선정 기준과 그 전개안,” 지리학연구, 9, 725-756.
- Berry, B. J. L., 1964, *Approaches to regional analysis: A synthesis, Annals of the AAG*, 54(1), 2-11.
- McMurry, C. A., 1922, *Special Method in Geography: From the Third through the Eighth Grad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Bednarz, S. W. et al., 1994, *Geography for Life: What Every Young American should Know and be Able to do in Geography*, National Geographic Research & Exploration.